

텍사스주, 의안분석 회사 규제 법안 의회 통과

지난 6 월 2 일, 텍사스주 의회에서 의안분석 회사와 관련된 법안([SB 2337](#))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안분석에 많은 부담을 야기할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올해 9 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안 주요 내용

법안은 텍사스 주에 본사를 두거나 텍사스 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 그리고 텍사스 주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텍사스 주를 본사로 두고 있는 주요 기업으로는 Exxon Mobil, Dell, AT&T 등이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안분석 회사로 하여금 권고를 할 때에 ESG, 지속가능성 등이 아닌 재무적인 요소만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안분석을 할 때에 비재무적인 요소가 고려되었다면 의안분석 회사는 (1) 의안분석 서비스가 비재무적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에 근거하였으므로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고, (2) 안전별 권고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권고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하여 투자수익의 감소 또는 추가적인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등 재무적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3) 회사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한 것이 아님을 눈에 띄도록 공시하고, (4) 분석 대상 회사에도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주제안의 경우, 주주제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견과 다른 권고를 하거나 주주제안의 단기 및 장기적 재무적 영향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사항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지 않은 고객 기관투자자에게 동일한 안전을 두고 서로 다른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객 및 분석대상 회사, 텍사스 주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안전에 대한 권고가 온전히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인지 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시사점

제안된 법안은 의안분석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그 가결 여부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안건은 실상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빈번한 안건인 이사 선임의 건이 대표적입니다.

의안분석 회사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또는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의안을 분석해 왔으며 이 지침은 인수합병과 같은 사안을 제외하면 재무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루고 있지 않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기대대로 의안분석 회사가 모든 의안에 대해 재무적 영향만을 고려한 분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단기적으로는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권고임을 밝히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Glass Lewis 는 지난 5 월 15 일, 이 법안이 의안분석 회사 및 투자자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재무적 이익을 희생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해석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의안분석 회사인 ISS 의 대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주를 이루지만, 미국 기업들의 주주총회는 대개 9 월 전에 종료되므로 내년 정기주주총회가 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당장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재무적 요소를 희생하면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이 명시된 의안분석 권고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이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나 원칙, 혹은 의안분석 보고서의 활용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안이 적용될 내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앞서 법안에 변화가 있을지, 혹은 텍사스 주의 시도가 다른 주로 확대될지, 투자자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지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